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11월 8일 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에서 열린 ‘함께하는 김장김치 나눔행사’에서 김장김치를 담그며 온기를 나눴다. 이날 담긴 김장김치는 저소득층·취약가구,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된다. /사진 맹철영

민선 8기 첫 본예산 9조 8907억원 편성

김 지사,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
올해보다 5106억원(5.4%) 증가
농업·균형발전·미래산업·민생 방점

“220만 도민의 하나된 힘으로
충남의 새 역사 힘차게 만들 것”

충남도는 ‘힘센충남’을 실현하기 위한 2023년도
본예산안 9조 8907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
출했다.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11월 7일 충남도의회 제
34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8기
첫 본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
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9조 3801억
원보다 5106억 원(5.4%) 증가한 9조 8907억 원
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8조 2045억 원, 특별회계 9598억 원,
기금 7264억 원 등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
민을 위한 사업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했다.

이를 위해 중복성이 있는 현금성 복지사업과
부담비용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 지원사업을 합
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재정투자 방향을 전략적
으로 재설정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도정의 역점사업 139건에 대해 5876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스마트팜 공급 등 농업발
전과 지방도 정비 등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 등 지역균형 발전,
민생경제 안정, 내포 혁신도시 명품도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반면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와 청년 농어업인
바우처와 같이 중복 지원되는 현금성 사업과 부
담비용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 지원사업, 청년
희망카드처럼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

주요 사업 내역

SOC 인프라 확충 권역별 균형발전

-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운영 2억 원
- 지방도 정비 1260억 원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구축

-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66억 원
-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11억 원

의료·보육 불균형 해소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60억 원
- 보육특수시책 366억 원

청년 맞춤형 지원

- 충남 청년 해외연수 15억 원
- 청년 창업 지원 및 인턴 캠프 운영 15억 원

시장경제 활성화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

- 수소도시 조성 26억 원
-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18억 원

어르신·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참전명예수당 58억 원
- 파크골프장 조성 36억 원

내포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열린 도정, 일 잘하는 지방 정부

해서는 구조 조정에 각 분야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전환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을 확충하고 권
역별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방도 정비 1260
억 원 ▲케이티엑스(KTX) 천안·아산역 복합환
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6억
원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용역
2억 원 ▲지역 균형발전 스마트 공장 구축 3억
원 등을 반영했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구축을 위

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66억 원 ▲청
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11억 원 ▲충
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30억 원
▲농·어촌 주거공간 개선 110억 원 등을 편성
했다.

의료·보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보육특수
시책 366억 원 등을, 청년 맞춤형 지원을 위
해서는 청년 해외연수 15억 원, 청년 창업·창
직 지원 및 인턴 캠프 운영 15억 원 등을 반
영했다.

충남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수소도시 조
성에 집중하고,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한다. 시장경제 활성화 및 미
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전통시장 대
규모 주차장 조성 100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
원 이자보전 69억 원 ▲수소도시 조성 26억 원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18억 원 등
을 담았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경과
예우 강화 및 보훈 정신을 확산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3억 원 ▲파크
골프장 조성 36억 원 ▲참전명예수당 58억 원
▲의병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2억 원 등도
편성했다.

충남내포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할 수 있
도록 ▲홍예공원 명품화 마스터 플랜 수립 3억
원 ▲내포신도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4억 원 등
을 반영해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열
린 도정·일 잘하는 지방 정부 구현을 위해 ▲남
부출장소 운영 3억 원 ▲도민교육과정 운영지원
3억 원을 반영했다.

김태홍 지사는 “충남의 발전을 위한 구조와
시스템 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중요
하다”며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먹거리를 준
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12월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
정이다.

〈관련 8면〉

/김정원 jwkim87@korea.kr
/예산담당관 041-635-3151

베이밸리 메가시티 전국에 알렸다

보령해저터널 형상화한 부스 마련
권역별 발전전략 등 주요정책 소개
신 대한민국 경제산업지도 구축 박차

충남도가 전국을 대상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5대 권역별 발전전략’ 등 주요 정책을 알렸다.

도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부산 벡
스코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100년을 내다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주제
로 정책을 소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
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17개 시도가 주최하
고, 부산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새정부의 ‘지방시대’ 국정비전을 공유하
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도는 서해바다로 단절된 두 도시를 잇는 보령
해저터널을 형상화한 충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
로의 연결통로를 콘셉트로 부스를 마련, 주요
정책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충남의 발전상
을 연출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충남 북부권과 경
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전기차,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한국의 4차 산
업을 이끄는 글로벌 경제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경기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협약에 따라 양 도는 ▲천안-아산-평택 순
환철도 건설 ▲충남·경기 연결지역 최첨단 산
업벨트 조성 ▲평택·당진항 물류 환경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충남·경기 해안
지역 국제적 관광지(k-골드코스트) 조성 등 협
력한다.

이와 함께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 벨트 조
성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 ▲서해안
권 marina 거점 공동 육성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공동 대응 ▲충남·경기 현안 사항 및 중
장기 발전 방향 공동 연구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5대 권역별 발전전략은 ▲대한민국 디지털 수
도(천안·아산) ▲문화명품 관광도시(공주·청양·
부여) ▲국제해양 레저관광벨트(당진·서산·태
안·보령·서천) ▲충남혁신도시완성(홍성·예산)
▲국방특화 클러스터(논산·계룡·금산)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도는 100년
을 내다보는 비전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지도
를 재설계하고,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
이라며 “힘센충남의 더 큰 미래를 향한 힘찬 출
발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엑스포는 ‘새로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방시대’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지방시대 엑스포’로 통합 개
최한 것이다.

/균형발전과 041-635-3662

모바일 충남도정신문 운영

충남도정신문은 ‘카카오톡 뷰’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신문을 운영합니다. 카카
오톡 검색창에 ‘충남도
정신문’을 입력하고 채
널 추가하면 다양한 정
보와 이벤트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유치 본격화

도, 충남치과의사회 등과 협약
유치위 구성해 정치권·정부 설득
“치의학 연구개발 인프라 보유”

충남도가 정부 지역 정책 15대 과제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본격 나섰다.

도는 11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천안시, 단국대, 오스텝임플란트, 충남치과의사회와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협력하기 위해 맺었다.

이들은 각 기관 및 기업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협력 및 지원 ▲국회 및 중앙부처 유치 활동 추진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최근 고령화와 구강 만성질환 증가로 치과 관련 의료 수요가 늘고, 치과 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학과 약학, 한의학 관련 전문 연구기관은 있지만, 치의학 분야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치의학 분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위한 특화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천안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순천향대학병원 등이 위치해 있고, 치의학 연구개발 인프라 및 줄기세포 조직 재생 분야 글로벌 연구인력 보유하고 있다.

또 치의학 선도연구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외기관연구센터(〃), 중점연구소(교육부), 과학벨트 기능지구 등이 입지해 있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이 전국에서의



11월 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동유치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접근성도 탁월하다.

도와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위치로 천안아산역 인근 융복합 R&D(연구개발)지구를 꼽고 있다.

주요 기능은 정부 구강 정책과 연

계해 산·학·병·연 협업체계를 구축, 종합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요소·원천 기술 기반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이다.

김태흠 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모를 통해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반드시 천안에 설립해야 한다”라고 했다.

/보건정책과 041-635-4301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1만→14만 곳으로 확대

도·농협 아동급식카드 개선 협약

내년부터 충남도 내 결식우려아동에게 발급하는 아동급식카드 사용처가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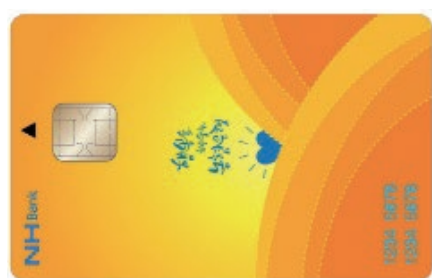
도는 11월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아동급식카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결식우려아동의 급식 선택권 강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도내 72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

도와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의 협약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아동급식카드의 사용처가 식당, 편의점 등 1만 4174 곳에서 14만 1548곳으로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급식카드를 일반 신용(체크)카드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변경해 아동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느꼈던 불편함도 해결했다.

결제방식은 마그네틱에서 집적회로(IC) 방식으로 개선해 결제 오류 등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이용의 편리성을 높였다.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변경시안

한편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다음 달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7

올해 농어민수당 총 1448억 지급

해당 시군·주민자치센터로 문의

충남도는 도내 23만 3800여 농어민에게 올해 총 1448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2021년 1월 1일 이전

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도민 중 농어업의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농어업인 개인에게 지급되며 1인가구는 80만원, 2인가구 이상

은 1인당 45만원으로, 부부의 경우 90만원이 지급된다.

부부와 자녀 1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135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난해 가구당 80만원 지급 방식 대비 128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식량원예과 041-635-405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총력’

방역·재난부서 합동회의 개최

최근 충남도 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지속되면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방

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질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달 21일부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을 배부하는 등 시군 및 농가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11월 11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천안 종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농장 사람·차량 출입 통제 ▲방역대 내 농가 현황 파악 ▲발생 농가 살처분 추진 등을 시군과 공유했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5

/사회재난과 041-635-3285

애국정신 잇는 ‘21세기 유관순’ 찾는다

유관순상·유관순햇불상 후보자 접수

유관순상위원회는 12월 22일까지 제22회 유관순상·유관순햇불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유관순상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여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정의 실현한 여성 ▲사회봉사와 협동 실천으로 국민화합에 헌신한 여성 등이며, 단체에 대한 추천도 가능하다.

유관순햇불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가운데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국내·외에 선양·구현한 학생 ▲학교·사회에서 건전한 학생문화를 창조·구현한 학생 등 자격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유관순상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서면·현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하고, 3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관순상·유관순햇불상은 조국 독립에 앞장선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시대에 맞게 구현하고 있는 여성을 선발해 시상하는 것으로, 충남도와 이화여고,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관한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3

김구 은신처 자백 받기 위해 사형 집행 연기하다

대한의 청년, 윤봉길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15)오사카 위수구금소로 이송



윤봉길 의사를 오사카 위수구금소로 호송 중인 자동차대편조일신문, 1932년 11월 21일

윤봉길은 1932년 5월 25일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상해 의거로 체포된 지 불과 한 달도 안되어 전격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윤봉길의 사형 선고는 시라카와의 병세와 관련이 있었다. 시라카와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병세가 악화되자 그가 죽기 전에 윤봉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해파견군 사령관대리의 명령으로 사형 집행이 연기되었다. 김구의 은신처를 자백 받기 위한 때문이었다. 상해 일본영사관에서는 김구에게 처음에는 20만원의 현상금을 붙였다가 다음에는 일본의 무성과 조선총독부, 상해주둔군 사령부 등에서 일화 6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체포에 기를 쓰고 달려들었다. 당시 60만원의 값어치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중국과의 정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군이 철병하게 되었다. 헌병대도 전원 귀국하기로 하고 유치장 시설이 불안전하다면서 윤봉길을 일본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윤봉길은 11월 28일 일본 우편수송선 다이요마루(大洋丸)에 실려 상해를 출발하여 고베(新戸)항 바깥의 와다미사키(和田岬)에 도착하였다. 당시 일본 신문 보도에 의하면, 배안에서의 윤봉길은 ‘말없이 창백한 얼굴이었으며, 여름용 메리야스 셔츠 위에 얹은 갈색의 양복과 춘추복 외투를 입고, 머리는 길었으나 수염을

깎은 흔적이 푸르고, 날카로운 눈빛과 함께 매우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윤봉길은 오사카에서 온 사복한병들에게 인계되어 오사카 육군 위수구금소의 독방에 수용되었다. 황색으로 된 죄수복을 입었다. 식사는 군인들에게 주는 것이 제공되었다. 윤봉길이 오사카에 구금되어 있을 때 일본반제동맹 오사카지방위원회에서는 “조선인이 배출한 반제국주의자 윤봉길의 총살에 대한 반대운동을 일으키자”라고 쓰인 인쇄물을 비밀리에 살포하였다. 오사카 지역은 특히 한인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오사카 한인들은 오사카의 텐노지(天王寺) 앞 광장에서 조선총독의 폭압정치에 대한 반대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오사카에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부담감을 갖게 된 일제는 윤봉길을 12월 18일 가나자와로 이송하였다. 가나자와에서는 헌병대는 물론이고 경찰이 총동원되어 윤봉길을 군용차에 태워 오후 5시경 제9사단 위수구금소에 가두었다.



김 상 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육사 충남 이전’ 국민 공감대 확산 총력

**육사 이전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이전·유치 당위성, 추진전략 논의
추진위,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충남도가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국민 공감대 확산에 집중한다.

도에 따르면 11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육군사관학교(육사) 충남 이전 및 유치’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충남도와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대전일보와 김종민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는 육사 충남 이전 및 유치를 위한 정치권 공감대 확산 및 전문가 제언과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는 육사 충남 이전의 경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균형발전 관련 국가정책 기여·교육 시너지 효과·접근성 등 이전 당위성을 소개하고 유치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육사 충남 이전 당위성으로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방연구교육 클러스터, 조국수호의 거점, 행정수도 인접 등이 있다.

특히 논산은 육군훈련소와 국방대가 있고 국방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있으며, 계룡에는 삼군본부가 자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방 유관기관 30여 개가 인접해 있다.

아울러 도내 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각층이 육사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다.

앞서 육군사관학교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추진위)는 10월 5일 출범식을 갖고 국민 공감대 확산 활동에 나섰다.

추진위에는 약500여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이경용 충남새마을회 회장과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이 상임위원장을, 차호열 국제로타리3620지구 회장 등 14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는 육사 충남 유치를 위한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며 220만 도민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 공약 조속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방위로 전개한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균형발전과 041-635-3661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하고 노동 복지 격차 해소한다

**도·시군·고용노동부·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4~5호 협약
직원 복지기금 지역화폐로 지급**

충남도가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부여·청양·홍성군, 고용노동부, 59개 중소기업과 손을 잡았다.

도는 11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4~5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복지 지원을 늘리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운영 ▲복지기금 출연 등 행·재정적 지원 조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자문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협력하고 복지 격차 완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설립하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는 청양군과 32개 기업 수혜 노동자 700명이, 5호는 부여군, 홍성군과 35개 기업 수혜 노동자 521명이 참여한다.

기금 출연은 중소기업 40만 원, 도 20만 원, 군 40만 원, 정부 지원금 80만 원 등 1인당 180만 원으로 내년에 총 2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복지기금 법인은 내년 추석에 67개 기업 직원 1221명을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씩 총 9억 7700만 원의 복지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1호를 시작으로 올해 5월 2호와 3호를 설립했고, 내년에는 3개의 법인(4~6호)을 추가로 설립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대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면 정부가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03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공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이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충청권 4개 시도를 최종 선정했다.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간 4개 시도 30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체육진흥과 041-635-3861

‘우유 짜기’도 무인로봇 시대…도내 농가 첫 보급

**논산 젖소농가 1곳 시범 운영
우유 짜는 과정 자동화 전환**

충남도가 국산 로봇착유기를 처음 보급하며 ‘디지털 낙농’ 기반 확보에 나섰다.

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 시범 사업’을 통해 논산 젖소농가 1곳

에 로봇착유기 보급을 완료했다.

젖소가 착유실에 들어가 자동 급여된 사료를 먹는 사이 로봇이 착유컵을 부착해 우유를 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존 세척→착유컵 부착→착유→소독 등 인력이 투입됐던 과정을 자동화했다.

젖소 1마리 당 체류 시간 7분 34.5초, 1일 착유 가능 횟수 190.1회, 1일 1

마리 당 3회 착유 시 1대 당 착유 가능 마릿수 63.4마리 등 성능은 외국산과 비슷하다.

이와 함께 로봇착유기로 우유를 짜면서 유량과 성분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연내 서산 지역 낙농가에도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72

귀어학교 졸업으로 성공적 어촌 정착

**제7기 귀어학교 졸업식 개최
체류형 실습 통해 이해도 UP**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11월 11일 충남귀어학교에서 ‘제7기 귀어학교 졸업식’을 개최했다. [사진]

졸업식은 4주간 교육을 수료한 제7기 충청남도 귀어학교 교육생 22명 및 학교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 표창장 및 졸업장 수여, 격려사, 기념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 수여식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참가하고 교육생들 간 화

합에 기여 및 성적이 우수한 홍영순 씨가 도지사 표창을, 김영춘 씨가 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7기 과정은 귀어인의 성공적인 창업 및 어촌에 대한 이해가 향상될 수 있도록 2주간의 이론교육과 함께 어촌살이캠프에서 2주간의 체류형 실습으로 진행했다.

특히 어촌살이캠프에서 참맛잡이, 바지락 공동작업 등 맨손어업과 어선 조업 및 그물 수선, 감태선별작업 및 가공시설 체험 등 향후 어촌에 귀어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64





온실가스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2045년 Zero(0) 실현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한걸음 앞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선정 아산 경찰타운 접근성 뛰어나' "최종 선정 위해 2차 평가 총력"

충남 아산이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하며 청신호를 밝혔다. 도는 11월 11일 경찰청의 국립경찰병원 분원 부지평가위원회에서 아산시

초사동 경찰타운이 경남 창원, 대구 달성과 함께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4월 27일 충남 지역 공약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돌연 '경찰병원 분원 건립 TF'를 구성하며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아산을 비롯한 후보지 3곳은 경찰청

요구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지자체 제출 자료 검토 등 사전 작업과 이번 부지평가위원회 1차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아산 경찰타운이 ▲부지 활용 가능성 ▲병원 건립 용이성 ▲개발 실행 가능성 ▲확장 가능성 ▲도로·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의료기관과의 협력 용이성 ▲산업단지와의 연계 가능성 ▲인구 유입 ▲주변 지역 환경 ▲정책적 지원 ▲비수도권 경찰공무원

접근 편이성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산은 중부권 메가시티 핵심 도시 중 하나로,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아산 후보지는 특히 경찰타운에 위치해 전국 경찰공무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와 산업단지가 있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며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 대학과의 의료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점도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최적지로 꼽힌다. 도 관계자는 "이달 셋째주부터 진행되는 2차 평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산에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설립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균형발전과 041-635-3665

“경찰병원 충남 설립 대통령 공약 이행하라”

충남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충남도 내 126개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의 '국립경찰병원 분원 충남 아산 설립' 공약 조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충남 시민사회단체는 11월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아산 온양온천역 유세에서 220만 충남도민에게 충남 아산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23개 진료과

를 갖춘 550병상 규모의 3차 병원으로, 경찰청은 심사 절차를 거쳐 12월 중 우선협상자치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충남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 당선 이후 충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도민보고회에서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220만 도민 앞에서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말 경찰청은 돌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를 공모 접수했다"라며

"그 결과 19개 지자체, 24곳의 건립지가 접수되어 이미 약속된 대통령 공약 이행 전에 소모적인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전국적으로 지역 간 여론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는 "전국 경찰공무원의 건강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충남 아산시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과 041-635-3665



노·사·민·정 정의로운 전환 선언

공동 선언·사회적 담론 공유 충남도는 11월 9일 정의로운 노동 전환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2022년 노·사·민·정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 및 노동 전환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정의로운 산업 전환 지원 체계 구축 실천에 협력하기로 다짐하며 공동 선언했다.

먼저 도내 노동단체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 민관 협력(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전환 교육 참여 등 노동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사용자단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전환에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며, 전환 과정에서 직무 전환·고용 유지 등 상생의 고용 안정

조치와 전직 희망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전직 준비, 재취업을 지원한다. 민간단체는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 전환의 취지를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감시자 역할 및 협력 주체로서의 실천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도와 중앙행정기관은 저탄소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기업의 사업 전환과 노동 전환의 시급성, 규모에 따른 전략적 대응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4

창업기업 아이디어 발굴해 성장 지원

도·충남TP, 창업경진대회 개최 충남도는 최근 '2022년 충남창업경진대회'를 열고 우수기업을 시상했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내 15개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

업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발굴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했다. 평가 결과 단국대 입주기업인 씨에스컴퍼니가 '지역 특화자원인 천안 배를 활용한 바디 스캔 클렌징 개발'로 높은 점수를 얻으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주대 입주기업인 제레스팜이 '클린룸 환경제어를 통한 탈중심의 모듈형 자동화 식물 농장 올인원(All in one) 시스템'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울러 백석문화대 입주기업인 에스와이에스가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축산폐수 처리 개발'로 우수상을 받았다. /기업지원과 041-635-2226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 안전 점검

충남도는 '2022년 하반기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현장 안전 점검'을 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등 강화된 법령과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도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살피고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도와 시군이 발주한 공사 및 수행사업 중 안전관리가 상대적

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71곳으로, 산업재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떨어짐, 깔림, 끼임 사고의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2244

소문난 샵 할인쿠폰 이벤트 '팡팡'

월별 1회 4000원 할인 적용

충남도는 12월 27일까지 연말 소비 촉진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충남형 공공 배달앱 '소문난 샵' 할인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내 소문난 샵 앱을 이용해 1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4000원 할인 쿠폰이 자동 적용되며, 월별 1회씩 최대 2회 사용할 수 있다. 충남형 공공 배달앱인 소문난 샵은 기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도입한 것으로, 현재 보령·아산·서산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소문난 샵은 별도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가 0.9%로 낮으며, 기존 민간 배달앱과 달리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지역화폐 연계 결제 시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셈이며, 소상공인은 소비자가 지역화폐로 결제했을 때 결제수수료를 떼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적다. /경제소상공과 041-635-3314

새로운 안보 위협 대응 힘 모은다

통합방위협의회의서 현안 논의

충남도는 11월 3일 매한 윤봉길 의사 서거 90주년을 맞아해 예산 윤봉길의 사거념관에서 민·관·군·경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2022년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 통합방위 업무 추진 실적과 군 통합방위작전태세를 점검하고 국방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육사 충남 이전 유치 추진상황을 살폈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대내외 각종 안보 현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철저한 지역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총의사로 이동해 현화·분향 등 참배하며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 정신을 기렸다. /안전정책과 041-635-2174

기다립니다 당신을

진실화해위원회

신청대상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국군, 경찰, 미군, 인민군, 화·무력 등에 의한 피해)
-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강제징집, 남북귀환아부, 상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진실 화해통일위원회가사정리위원회 홍보대사 장현성

말해주세요 진실을

기간 2022년 12월 9일까지

문의 02-3393-9700

케이(K)-유교 세계화 충남이 이끈다

제6회 충청유교 국제포럼 개최 K-유교 에코뮤지엄 등 사업 추진

충남도가 충청유교의 세계화 및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역할 정립을 위해 동·서양이 함께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9일 ‘동양과 서양의 만남, 유교와 문화해’를 주제로 ‘제6회 충청유교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도는 ▲케이(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 ▲유교문화와 이야기를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 ▲유교 명문가 생활문화 경험 프로그램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근 개방형 수장고, 디지털 전시관, 케이(K)-유교 문묘 생태공원 조성 등 다양한 유교문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먼저 도널드 베이커(Donald L. Baker)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명예교수는 ‘관계적 자아 : 현대사회에서 개인을 규정하는 유교적 접근법’을 통해 유교적

인간관을 관계에 기초한 인간관으로 규정하고 현대사회를 위한 유교의 가장 큰 공헌은 고립된 개인이 아닌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르너 사세(Werner Sasse) 독일 함부르크대 명예교수는 ‘세계철학을 향한 동양과 서양철학의 차이 극복’을 주제로 보편성을 갖춘 세계 철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유학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이를 위해 “옛 문헌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되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서술할 것과 유교문화권의 국가들과 소통·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응웬 타이 동(Nguyen Tai Dong) 베트남 사회과학한림원 철학원장은 ‘베트남 유학의 종교적 차원과 그 현대적 가치’를 발표해 베트남 유학의 종교적 측면을 분석하고 “내세를 강조한 일반적인 종교와 달리 베트남 유교에는 교주나 교리 교육, 제사 체계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 유학을 종교로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서양이 조선으로 걸어 들어왔다’ 발표를 통해 조선 유학자들과 서양인 하멜의 만남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필요한 것은 차이를 강조한 소외보다는 의미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한형조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참여자 등이 함께하는 좌담 시간을 통해 ‘유교를 통한 동양과 서양 문명의 대화’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앞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베트남 사회과학한림원 철학원과 유교문화 상생 발전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맺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유교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공동사업 및 연구를 발굴·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화유산과 041-635-3917



벗집으로 허수아비 만들어요

충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내포자연놀이들이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가족을 대상으로 개최한 ‘우리집 허수아비 만들기 대회’가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용봉산 자락 야외놀이들에서 열린 가운데 인성학습원에서는 허수아비 제작에 필요한 기본 뼈대와 벗집, 새끼줄을 제공했다.

/내포자연놀이들 041-631-8931



도정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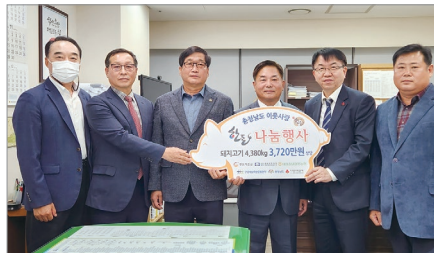
“병든 과실, 잔가지 제거 중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복숭아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월동 병해충의 잠복처 제거 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복숭아 병해충은 주로 잎이나 과실에 피해를 주고 겨울철 낙엽, 봉지 등에서 월동하다가 이듬해 봄부터 다시 발생하는 만큼 월동 전 병원균 및 해충의 밀도를 낮춰야 생육기에 방제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병해충 발생이 많았던 과원에서는 병해충의 잠복처가 될 수 있는 병든 과실, 나뭇가지에 남아 있는 봉지, 잔가지 등 병해충 잠복처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083



양돈농가 소외계층에 나눔 한 마음

충남도 내 양돈농가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을 실천했다.

도는 11월 4일 김은호 충남한돈협회장과 이재만 대전충남양돈농협 조합장이 소외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돼지고기 438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받은 돼지고기는 도내 양돈농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조성한 자조금과 대전충남양돈농협의 협찬

으로 마련했다.

도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아동·장애인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돼지고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과 041-635-2543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충남도는 11월 7일 공주시 종합터미널 일원에서 올해 6번째 ‘교통안전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도와 자치경찰위원회, 공주시, 공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충남교통연수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충청남도 교통안전문화협회 등 교통 유관기관과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교통안전 홍보 물품 배포 및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교통안전 문화 의식을 알렸다.

도는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6일 교통안전의 날 지정했으며,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캠페인 활동을 펴고 있다.

/교통정책과 041-635-4572

이웃돕기 성금 1600만 원 기탁

충남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회원들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16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충남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도는 기탁받은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 041-635-4254

안면도휴양림 숲속의집 증축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안면도자연휴양림 내 휴양시설인 숲속의집 증축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새로 지은 숲속의집은 지상 2층 구조인 1동 2실 연립동으로 건축했으며, 실마다 방 2개와 화장실 1개를 갖췄다.

증축 객실은 숲나들이(e) 누리집 또는 안면도자연휴양림 누리집에 추가 공지를 통해 다음달은 선착순으로, 내년 1월부터는 추첨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291

병해 강한 감자 품종 내년부터 분양

충남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는 내년부터 맛은 물론 생산성이 높고, 병해에 강한 감자 품종인 ‘다미’를 15개 시군에 분양한다.

다미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이며, 2018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권 등록을 마쳤다.

도는 다미를 조직배양, 분무경·배지경재배를 통해 씨감자를 생산, 내년부터 15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분양할 계획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291



어촌 활성화 방안 논의의 장 마련

워크숍서 도·정부 정책 공유

어촌 특화상품 개발 품목 전시

충남도와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11월 10~11일 보령 무장포 비체펠리스에서 ‘충남지역 어촌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어촌계, 지역단체, 학계 및 도·시군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 특강, 도 정책사업 소개, 포럼 등을 실시했다.

첫날 전문가 특강에선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부장이 ‘충남어촌 신활력 제고와 어촌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어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및 과제, 어촌 신활력 정책 방향 등을

짚고 어촌활동가 양성,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올해 어촌 특화 및 귀어·귀촌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2차 충남 귀어·귀촌 종합 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 충남 귀어·귀촌 종합 계획의 비전은 ‘돌아오고, 정착하는 활기찬 어촌’이며, 추진 전략은 ▲귀어·귀촌 지원체계 개선 ▲귀어인 정착 지원 강화 ▲다양한 귀촌인 지원이다.

이와 함께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어촌 특화상품 개발 품목인 꽃게어묵, 간장게장구시, 매콤해삼통찜, 김소라죽, 계곡지면을 전시해 참가자의 반응을 보고 의견을 수렴했다.

/어촌산업과 041-635-4845





알록달록 가을 단풍 물든 금강수목원

금강수목원은 은행나무를 시작으로 단풍나무 중심의 단풍나무원까지 현재 노랗고 붉게 물든 나무들이 가을의 빛깔을 뽐내고 있다. 금강수목원에서는 단풍놀이 외에도 메타세콰이아길 사이로 펼쳐진 황톳길에 있어 맨발로 황토위를 산책하는 흥미진진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372

부남호서 수질 오염 사고 대응 점검

시군·관계기관 합동 방제 훈련 전문 장비 동원 신속 초동 대응

충남도는 11월 4일 태안군 태안읍 송암리 태안기업도시 부남호 교량에서 수질 오염 사고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수질 오염 사고 방제 훈련’을 추진했다. 이날 훈련은 ▲사고 접수 및 사고 전파 ▲상황 판단 회의 ▲수습반 긴급 투입 및 오일펜스 설치 등 유류 제거 작업 ▲현지 상황 보고 ▲2차 방제

작업 및 수질 오염 범위 확인을 위한 수질 조사 등 대규모 수질 오염 현장 조치 행동 지침(매뉴얼)에 따라 진행했다. 훈련은 태안읍 송암리 농경지에서 대형 트랙터에 주유 후 이동 중인 배달용 소형 유조차가 전복돼 경유 약 100l가 배수로로 통해 부남호 상류부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본래 천수만이었던 부남호는 서산 방조제 공사로 인공호수가 된 곳으로, 방제가 지연되면 농업용수 및 하류 천

수만까지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 이에 훈련 참여자들은 지침에 따라 실제 상황처럼 훈련을 전개하며 상황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한 전문 방제 장비를 동원해 ▲유회수기를 통한 하천 내 유류 회수 ▲고압분무기를 사용한 방제 독 내 유류 처리 등 실제 상황을 재현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물관리정책과 041-635-4472

도내 다중이용시설 안전 살핀다

예상 대피 경로, 위험 요소 점검

충남도가 다음달 9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92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대상 시설은 도내 15개 시군 소재 공연장, 전통시장, 박물관, 미술관, 버스터미널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다중 운집 시 예상 대피 경로 및 위험 요소 등이며,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응급조치 후 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지속 관리해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1일부터 축제(행사)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 중으로, 다음달 25일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9개 시군 16개 행사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사회재난과 041-635-3288

공주 정안면서 출토…신라시대 제작 추정

국내외 충남 문화유산 다시보기

-삼존불비상(三尊佛碑像)

비석 형태로 다듬은 돌에 불상과 상을 조성한 기록을 새긴 불비상(佛碑像)은 중국에서 북위 시대부터 당대(唐代)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었다. 특히 불비상에 새겨진 글자는 조성 시기와 발원(發願)한 사람, 조성 당시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까지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그 예가 매우 드문데, 통일신라 초기에 제작된 7구(軀)의 불비상이 모두 충남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 불비상들은 조각 솜씨와 그림의 양식이 비슷하며 모두 옛 충청남도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서만 발견되어 이른바 ‘연기파(燕岐派) 불비상’이라고도 한다.

오늘 소개할 삼존불비상(三尊佛碑像)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에서 발견된 것으로 ‘연기파 불비상’과 같은 계열의 석상이며, 현재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삼존불비상에는 세 구의 존상(尊像)이 조각되어 있다. 중앙의 부처는 육계(肉계#39675;)가 있는 여래의 형상으로 통견식(通肩式) 법의를 입고 있다. 연꽃의 대좌 위에 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으며, 시무와 여원인(施無畏 與願印, 인간의 고통을 없애주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한다는 부처님의 손 모양) 수인을 취하고 있다.

좌측과 우측에 위치한 존상은 보살이다. 두 보살은 연꽃의 대좌 위에 서 있는 모습이며 얼굴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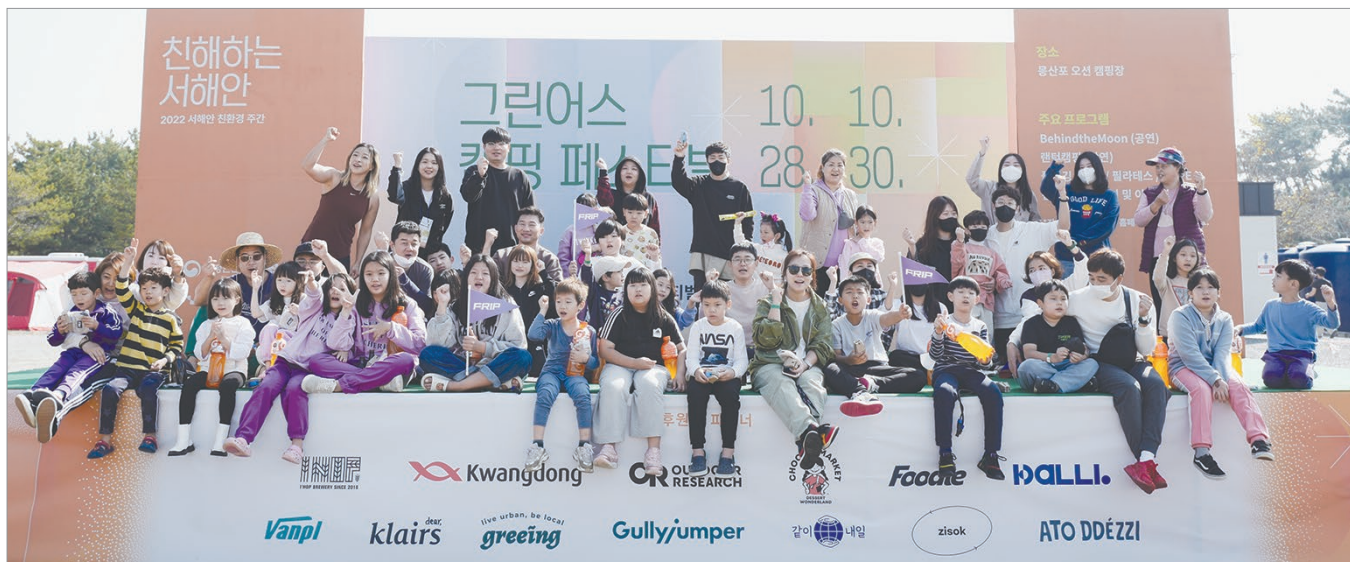
삼존불비상(三尊佛碑像).

기에 비해 하체가 긴 편이다. 두 보살 모두 목걸이와 장신구로 몸의 일부를 치장하였다.

이 삼존불비상은 제작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일부 남아 있는 부처의 온화한 얼굴과 머리 뒤에 표현된 광배, 광배 안의 꽃무늬 장식 그리고 정면을 향하고 몸을 살짝 비튼 삼곡(三曲) 자세의 보살에서 통일신라 7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왜 충청남도 연기지역에서 불비상들이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을까. 삼국시대 당시 이 일대는 백제의 영역으로, 백제는 중국의 당과 빈번한 교류를 통해 당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백제가 멸망(660년)할 무렵, 당에서는 아미타 신앙이 확산되어 이와 관련된 불교회화와 조각들이 제작되었고, 백제는 당의 아미타 신앙을 받아들였다. 백제가 멸망하고, 부흥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죽거나 핍박받은 중생의 명복을 빌고 자 절을 짓고, 불비상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장은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린어스 캠핑 페스티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닷가 걸으며 쓰레기 줍고, 폐자재로 장난감 만들고

서해안 친환경 주간 성황리 폐막

충남도는 지난 10월 태안군 일대에서 진행한 ‘서해안 친환경 주간’에 1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충남사회혁신센터와 ‘2022 친해하는 서해안’을 주제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이번 행사는 서해안 일

대의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친환경 문화를 선도하는 충남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행사 기간 동안 서해안의 자원 및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친환경 포럼과 해양 창업 투자 정보 제공, 제로웨이스트 캠핑, 업사이클링 워크숍, 플로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그

린어스 캠핑 페스티벌’에서는 1000여 명의 참여자들이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취지로 진행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동참했다. 이외 강연(랜턴캠핑)과 플로깅, 필라테스, 폐자재를 활용해 장난감이나 방한재 등을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공동체정책과 041-635-3473

이태원 사고 청소년 특별 상담실 운영

심리상담 서비스 등 전화 신청

충남도내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 특별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현장을 목격했거나, 현장에서 생존한 청소년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해 운영 중이며, 전화(1388)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전화 및 문자상담이나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면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1577-9337, 전국 공통)에서도 피해가족의 신속한 안정 및 회복을 위해 긴급 가족돌봄,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5

충남도립대 수시 신입생 모집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가 21일까지 수시 2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건설안전방재학과와 환경보건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기전

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등 공학계열과 자치행정학과(주야)와 경찰행정학과, 토지행정학과 등 인문사회 계열이다. 또 호텔조리제빵학과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작업치료학과 등 자연과학

계열을 포함해 총 12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입학홈페이지(<https://cnsu.ac.kr>) 또는 기획홍보처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립대 041-635-6699

가상공간에서 내포신도시 곳곳 탐험하세요

〈충남혁신도시〉

메타버스 구현 ‘내포혁신타운’ 구축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체험 가능

충남도가 최근 홍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국민 대상으로 내포신도시(충남혁신도시)를 알린다.

도는 내포신도시를 메타버스로 구현한 가상공간 ‘내포혁신타운’의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제페토나 줌(ZEP)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내포혁신타운은 줌(ZEP) 플랫폼을 활용해 구축했으며, 인터넷 주소창에 ‘www.naepotown.com’을 입력하거나 키워드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아바타를 통해 체험 및 탐험모드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접근성도 높였다.

체험모드는 전망대, 내포쌍(공공자전거), 5무(無) 도시, 시군 테마광장 등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게임으로 구성했으며, 모든 단계를 마치면 포토존을 거쳐 인증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했다.

탐험모드는 내포신도시의 주요 건물

과 도시존을 실제와 같게 구현했으며, 앞으로 내포신도시 발전 추이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도는 지속적인 내포혁신타운 방문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 관계자는 “공간적 제약이 없는 내포혁신타운을 활용해 수도권 공공기관 등 유치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여러 제약사항으로 아직 완벽하게 구현된 상태가 아니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정책과 041-635-2852



메타버스로 구현한 내포혁신타운



사진부문 최우수상 - 머드맥스, 나기환



우수상 - 동백정 가는길, 신승희

1일 영양소 섭취량 평가하세요

식단관리 프로그램 ‘메뉴젠’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식단관리와 영양분석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 ‘메뉴젠’의 도내 확산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이 2004년 개발한 메뉴젠은 사용자가 직접 식단을 국가표준식품성분표와 연계해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작성한 식단의 영양소 섭취량을 평가하고,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함유된 영양소를 조정해 대체음식을 추천하는 등 건강관리 식단표 작성에 도움을 준다.

메뉴젠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식품올바로(koreanfood.rda.go.kr)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86

드론으로 담은 충남의 아름다움 감상하세요

전국 드론 영상·사진 공모전

대상에 김진섭씨 등 19점 선정

충남도가 ‘드론, 충남의 아름다움을 담다’라는 주제로 실시한 전국 드론 영상·사진 공모전 종합부문 대상에 ‘리멤버(Remember) 충남’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충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지역명소, 문화재 등을 담은 참신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드론 영상

및 사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심사를 거쳐 최종 19점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작인 ‘리멤버(Remember) 충남’은 김진섭(경기 여주) 씨가 서해의 아름다운 대표명소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다.

최우수상은 사진부문 나기환(서울 송파) 씨의 ‘머드맥스’, 영상부문 박일환(충남 서천) 씨의 ‘미(美)·감(感)·쾌(快)·청(靑) 충남’이 선정됐으며, 이외

부문별 우수·장려·입선 등 16명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도정 홍보물, 도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행사 팸플릿 등 다양한 분야에 수상작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11월 9일 도청 1층 로비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토지관리과 041-635-4797

제1회 규암 산책 영화제 개최

12월 4일까지 이메일 접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부여군 규암 자운길 구도심 활성화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2022년 제1회 규암 산책 영화제’를 실시하고 12월 4일까지 참여단체(개인포함)를 모집한다.

규암 산책 영화제는 부여 청년창고와 관내 청년창업가가 공동 기획해 운영하는 영화제로 마을과 로컬이

중심이 돼 지역민과 함께하는 영화제이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책’으로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이메일(hyunwoo@ccei.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부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837-0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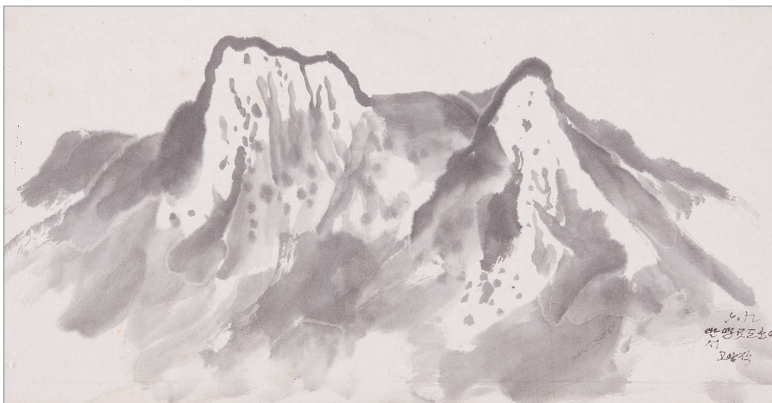
밥알과 휴지로 만든 옥중 작품…한없는 창작 열정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

화백 삶과 예술

1960년대 초반, 유럽전역에 자유의 물결이 들불처럼 번져 나아갈 때, 유럽발 민주화 열풍은 한국 군사정부에 큰 위협이었고, 이를 타계하기 위한 군사정권의 모략으로 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을 기획하였다.

그리고 유럽에 거주하던 수많은 지식인들을 대거 간첩혐의에 연루시켰고, 이응노는 “해의 국위 선양 예술인 초청 전시”라는 명분에 속아서 귀국을 종용당한 후 어떠한 법률적 변호도 받지 못한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납북된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동베를린 소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예술가로서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기막힐 일인데 게다가 그림조차 못그리는 암울한 수감 생활은 이응노를 극단적 상황까지



고암 이응노, 산수(관악산), 한지에 수묵, 28x53cm, 1969년 1월(안양교도소에서)

내몰았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에서 대전형무소로 이감되면서 이응노가 유명한 화가라는 점이 알려졌고 다행히 그림만은 그릴 수 있도록 간단한 그림 도구가 제공될 수 있었다. 참담한 감옥 생활에서도 그의 예술 열정과 창의력은 식을 줄 몰랐고 다시금 빛을 발하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밥과 휴지를 섞은 종이죽으로 사람 형상을 빚어 〈군상〉 작품을 만들고, 간장과 김칫국물을 젓가락으로 찍어 풍

경화를 그리고, 신문지 위에 문자추상을 새겨 놓으며 자신의 새로운 화풍의 씨앗들을 만들어 내었다. 아울러 이응노가 회고하였듯, 동백림사건에 연루되어 영여의 몸이 되었던 그 시기에, 그는 “교도소 안에서 수다한 굴곡진 삶을 겪어낸 민초들의 가슴시린 이야기를 들었고, 민중의 가난한 마음과 애달픈 삶을 자신의 몸으로 직적 느끼게 되었으며, 민족과 공동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자신의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고 술회하였다.

이응노는 1969년 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그해 5월에 프랑스로 떠나기 전 옥중에서 제작한 수많은 습작과 완성된 작품들 중 세심하게 골라 〈옥중작품〉 전시를 개최하였는데, 이응노의 회고에 따르면 완성된 작품이 약 300여점 정도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현재 예산 수덕사 수덕여관 너럭바위에 새겨진 〈문자추상〉 3점은 출소 후 3개월간 요양을 위해 잠시 여관에 머물면서 제

작한 작품이다.

/황찬연 DTC아트센터 예술감독

▶ 작품설명

왼편 작품은 이응노가 출소를 앞두고 그린 〈관악산 풍경〉으로 하단에 69년 안양교도소에서라고 적혀있다.

오른편 작품은 69년 1월 교도소 출소 후 예산 수덕여관에서 3개월 정도 요양을 하였는데, 머무르던 중 여관 앞 너럭바위에 새긴 문자추상 작품이다.

2023년도 본예산안 9조 8907억 원 편성

충남도가 2023년도 본예산안 9조 8907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8조 2045억 원, 특별회계 9598억 원, 기금 7264억 원 등이다.
‘힘센충남’은 도정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중복성이 있는
현금성 복지사업과 부담비용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재정투자 방향을 전략적으로 재설정했다.
주요 사업과 함께 예산안 규모를 살펴본다. /도정신문팀



주요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SOC 인프라 확충 및 권역별 균형발전

지방도 정비	1260
KTX천안아산역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6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용역	2
지역 균형발전 스마트 공장 구축	3
1,271	



시장경제 활성화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100
수소도시 조성	26
친환경 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성능평가 기반 구축	13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18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자보전	69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4
230	



의료·보육 불균형 해소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전문인력 지원	32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60
남부권 산후조리원 조성	30
부모급여 지원	917
보육특수시책	366
충남형 공공임상 교수제	6
1,611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구축

농어촌 주거공간 개선	110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11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건립·운영	21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66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30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16
254	



어르신·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참전명예수당	58
파크골프장 조성	36
의병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2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 센터	3
99	



청년 맞춤형 지원

충남 청년 해외연수	15
청년 창업·창직 지원 및 인턴 캠프 운영	15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1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3
44	



내포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내포신도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4
홍예공원 명품화 마스터 플랜 수립	3
7	



열린 도정, 일 잘하는 지방 정부

도민교육과정 운영 지원	3
남부출장소 운영	3
6	



9조
3,801억원



9조
8,907억원



5,106억원
증가

충남도 예산안 규모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8개)		기금(14개)	
	예산안	구성비	예산안	구성비	예산안	구성비	예산안	구성비
2022년	93,801	100.00	78,200	83.37	9,187	9.79	6,414	6.84
2023년	98,907	100.00	82,045	82.95	9,598	9.70	7,264	7.34



그래픽/조상호



부소산성 내 군창지 주변 조사에서 기와로 기반을 쌓은 백제 사비시대 초기 왕궁급 건물지 2동이 확인됐다.



다수 기와건물을 계획적으로 조성한 흔적이 발견된 화지산유적 서사면 중턱.

사비시대 ‘와적기단 건물지’·대규모 기와 건물단지 발견

사비도성내 역사 흔적 잇따라 확인
동서 길이 16m 이상 건물 두 동
13동 이상 기와 건물 ‘유일무이’
“이궁터 실체 복원에 중요한 유적”

[부여]부여군에서 문화재청과 함께 추진중인 발굴조사를 통해 사비도성내 역사 흔적들이 잇따라 발견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먼저 지난 7일 부여 부소산성 군창지 주변 시·발굴조사에서 백제 사비기 대형 와적기단 건물지 두 동이 확인됐다. 와적기단은 기와를 쌓아 만든 기반을 말한다. 이 건물지는 군대에서 사용할 식량을 비축했던 창고 터에서 발견했다.

부여 부소산성은 백제 사비도성 북쪽 중앙부에 자리한 산성이다. 사비도읍기 왕성, 후원, 배후산성 등의 역할을

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81년부터 2002년까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발굴조사에선 백제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성벽과 성내 시설물(주거지, 저장구덩이, 우물지 등)이 확인됐다.

와적기단 건물지는 백제의 대표 사찰 유적인 정림사지, 왕흥사지, 군수리사지 등에서 주로 확인된다. 사비기 후기 왕궁지로 거론되는 부여 관북리 유적, 익산 왕궁리 유적 등 백제 왕도 핵심유적에서 주로 확인된 건물지 형태다.

특히 와적기단 건물지는 동서 길이가 각각 16m 이상인 북쪽 건물과 14m 이상인 남쪽 건물지 두 동이 평행하게 배치된 양상을 보인다. 최대 20단 가까이 남아있는 기반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와적기단 건물지 기반이 평균 5~6단 남아있는 것과 견줘 수평으로 쌓은 와적기단 중 가장

잘 보존된 형태라 할 만하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부소산성 군창지 일대는 1993년 조사에서 ‘대당’ 명 와당, 중국제 자기 등 중요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이번 조사로 대형 와적기단건물지가 일정 배치를 보이는 점, 와적기단을 다른 재료를 거의 섞지 않고 정선된 기와로 축조한 점 등이 밝혀지면서 백제 건물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어 9일에는 ‘부여 화지산유적 9차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사비기 이궁터인 화지산유적 서사면 중턱에 대규모 대지를 조성한 뒤 다수 기와건물을 계획적으로 조성한 흔적이 확인됐다. 부여 궁남지(사적) 동쪽에 위치하는 부여 화지산유적(사적)은 연회 장소인 망해정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삼국사기』엔 무왕과 의자왕이 이곳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화지산 유적은 백제 사비도성 내부

의 중요 국가시설물 유적으로 알려져 왔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어정이라 불리는 팔각 우물과 기와를 얹은 초석 건물터, 도로 등이 다수 확인되면서다.

이번 조사에선 화지산 서향사면 일원에 배치된 핵심 건물터의 전체 규모와 축조 양상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건물 축조방식을 살펴보면 경사면을 절토해 대지를 조성한 뒤 크게 두 단계에 걸쳐 계획적으로 건물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1단계에서는 굴림주와 벽주 건물지가 조성됐다. 굴림주는 기둥 밑동을 땅속에 박아 세우는 방식이고, 벽주는 외곽에 벽을 돌린 형태로 벽사이

에 기둥을 세우는 방식을 말한다. 2단계에선 굴림주와 벽주건물지를 폐기한 뒤 흙을 돋워 쌓아 부지를 정비하고 초석 건물지를 조성했다. 초석 건물지 5동에선 원형·장방형 초석을 사용한 점이 확인됐고 일부 건물지에선 와적기단도 파악됐다.

대규모 수혈식 빙고(얼음창고)도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백제시대 빙고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기와 건물지를 비롯한 다양한 유구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일 수 있는 인력 동원 수준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풀이된다. 사비도성 내 지배계층의 건물 조성과정과 규모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정연하게 배치된 13동 이상의 기와 건물지는 현재까지 조사된 사비백제 유적 중 유일무이하고 당시 최고 토목기술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건축 기술까지 녹아든 사비도성 내 중요 시설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화지산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백제 왕실 궁궐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백제 이궁지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여군 제공

갯바람 맞고 자란 ‘태안 생강’ 본격 수확

진저를 풍부 맛과 향 뛰어나
전국 재배면적 10% 이상 차지



갯바람 맞고 자란 태안생강.

[태안]태안반도의 비옥한 황토에서 갯바람을 맞고 자란 태안산 생강이 이달 초부터 본격 출하돼 전국의 소비자들을 만난다.

태안군에서는 이달 현재 총 416개 농가가 183ha 면적에서 생강을 재배해 전국 생강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안 생강은 향산화 물질인 진저롤이 풍부하고 맛과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다소 줄어 들고 봄철 저온 및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생강 가격은 평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태안군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고온기 폭염 예방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생강작목을 선정해 육성하고 있으며, 차광재배 및 세줄재배의 실증시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병해충을 줄이고 경영비를 절감시켜 23%의 상품성 개선 효과를 거뒀다.

또한, 비닐피복을 이용한 조기재배를 통해 생산성을 30% 늘리는 등 경쟁력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태안군 제공

천수만 일대 바지락 종패 살포

양식장 13개소에 총 33t 뿌려

[홍성]홍성군은 8일 천수만의 명품 바지락 명맥을 잇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바지락 종패를 살포했다.

군은 1억 7000만 원을 투입, 양식장 13개소 483ha에 바지락 종패 33t을 뿌렸다. 바지락 종패는 1~2.5cm 내외로 6개월에서 2년에 걸쳐 모패로

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어업인들의 소득으로 이뤄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홍성지역의 바지락 생산량은 감소하는 실정이다. 2020년 252t에서 지난해 180t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도 여름철 고수온 피해와 적조 등의 영향으로 180t을 생산한 것으로 추산된다.

/홍성군 제공



홍성군 천수만 일원 해역에 종패를 살포하고 있다.

천안, 빵 소개 책자 ‘빵빵실록’ 발간

지역 빵의 역사·우수성 소개

[천안]충남 천안시가 지역 빵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고 빵 맛집으로 선정된 빵소(所)를 소개하는 책자 ‘빵빵실록’을 발간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빵빵실록’은 천안 맛집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18개 빵소와 그 곳의 대표적인 빵 소개, 빵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자에 담았다고 7일 밝혔다.

책자는 지역과 연대·상생으로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천안 제과인들의 신념과 자부심이 생생하게 기술했다. 시는 이 책을 전국 지자체와 지역 주요 관광지 등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지에 전자책으로 게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천안에서는 1934년부터 호두과자를 만들어 팔았다. 경주 황남빵(1939년), 군산 이성당(1945년), 대전 성심당(1956년)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구 66만 명인 천안에 빵집이 360여 개나 되는 것도 호두과자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72시간 저온 숙성한 바게트와 통밀빵을 비롯해 오리지널 호두범벅, 막개비 호두빵, 곰보빵 호두빵, 떡먹은 호두빵 등 인기 상품이 많다.

특히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확립을 위해 제과인과 농축산인, 기업, 대학, 지역문화인 등 모두가 참여하는 빵 축제를 해마다 열고 있다.



천안지역 빵과 유명빵집의 역사 등을 담은 빵빵실록

/천안시 제공

봉양수당 지급 연령 만 85→80세로 확대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발전 기여

[예산]예산군은 지난 7일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회 의결했으며, 2023년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연령 기준을 만85세 이상에서 만80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연령 기준 확대를 통해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발전 및 독거노인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를 예

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만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봉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에게는 월 3만원,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에겐 1명당 월 2만원을 추가해 지급하고 있다.

/예산군 제공

축제와 함께 즐기는 제철 특산물 ‘풍성’

김, 굴, 절임배추, 젓갈 등
다양하고 신선한 재료 넘쳐

[보령]여름을 지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까지 각종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보령을 찾고 있다. 축제도 즐기고 겨울 제철 맛은 보령 최고의 특산물으로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뉘보는 것은 어떨까.

식탁 위 밥도둑 김 바닷가의 바위돛과 같다고 하여 해태라고도 부르는 김은 웰빙 식품인 해조류답게 적당한 염도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도 좋고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영양분의 소화 흡수율이

높다. 보령은 국내 대표적 김 생산 지역으로 한해에 엄청난 양의 김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친환경 절임배추와 토굴젓 천북의 절임배추는 친환경 배추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배추가 공급되며, 서해안의 해풍과 비옥한 땅에서 자라 속이 짙고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염을 이용해 맛이 뛰어나다.

이와 함께, 배추 속 재료로 이용되는 명품 토굴젓도 인기다. 청소면과 성주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토굴젓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장기간 숙성에 맛과 향이 더욱 깊고, 보령 액젓으로 담가 품질까지 믿



보령 9미 중 하나인 천북 굴

음을 주고 있다.

바다의 우유 천북 굴

보령의 9미 중 하나인 천북 굴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에 좋고 칼슘이 풍부하다. 또 철분 이외의 구리도 함유돼 있어 빈혈에 좋고, 타

우린이 많아 콜레스테롤과 혈압 저하에도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천북 장은리 굴 단지에서는 굴 구이를 비롯해 굴 밥, 굴 칼국수, 굴 찜, 굴 무침 등 다양한 굴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보령시 제공

딸기유통활성화 가공시설 준공

[논산] ‘명품’ 논산딸기의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동시 지역 딸기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커다란 힘이 될 ‘딸기유통활성화 가공시설’이 지난 9일 오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노성농공특화단지 현지에서 준공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딸기유통활성화 가공시설은 지난해 충남도가 공모한 딸기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선정된 후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승인과 실시설계 과정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공사에 착수, 6개월 여만에 준공됐다.

지상 2층 규모로 지워진 시설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산물 선별장, 급속냉동 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논산시 제공

자연석 투석해 야행성 해삼 양식

산란과 서식 환경 조성

어촌계 소득 창출 기대

[당진]당진시는 교로 어촌계가 해삼의 산란과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석문면 교로리 일원 5ha에 자연석 투석을 실시했다.

‘교로 어촌계’는 낮 동안은 은신할 수 있는 바다 아래나 해조류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해삼의 야행성 특성에 맞춘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1㎡

크기의 자연석 1160㎡를 지난달 31일 바다에 투석했다.

이번 사업은 교로 어촌계의 사업 제안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1억9200만 원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11월 중 시비 4400만 원을 투입해 해삼 종패 8만5000 미를 방류해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당진시 지역경제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투석사업과 항만수산과의 해삼 종패 방류사업이 함께 추진돼 부서 간 칸막



해삼의 산란과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석을 투석하고 있다.

이를 제거해 어촌계와의 협력이 이루어진 좋은 선례를 남겼다.

/당진시 제공

AI 치매예방 돌봄로봇 호응

약 복용시간 알림, 말동무

외로움 해소 및 안전관리

[계룡]계룡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는 센터에서 운영 중인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거동, 교통 등의 사유로 참여가 어렵고,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독거 어르신 10명 가정에 AI 돌봄로봇 ‘다솜’을 설치했다.

AI 로봇 다솜은 ▲식사·약복용시간, 치매개선 운동 영상 및 건강관리 영상 콘텐츠 등의 건강생활관리 ▲말뭉치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교감 ▲

긴급 상황시 보호자 알림 등 어르신 외로움 해소 및 유사시 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센터는 12월까지 AI 돌봄로봇 사업 시범 운영 후 사업 참여 어르신 인터뷰 및 운영 결과 등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해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돌봄로봇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살다보니 대화할 상대도 없고, 약 복용시간도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솜이가 말동무도 해주고, 약도 먹으라고 알려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계룡시 제공

금산산림문화타운 무장애나눔길 조성

숲속의집~생태숲학습관

0.73km 데크산책로 구성

[금산]금산군은 금산산림문화타운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했다.

군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한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했다.

무장애나눔길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된 산책로이며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금산산림문화타운 내 통행이 많은 숲속의집~생태숲학습관 0.73km 구간에 평균 경사도 5% 이하 데크산책로와 황토포장길을 조성했다.

숙박지구에서 무장애나눔길을 통해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등 생태체험지구 및 하늘데크까지 접근성이 높아져 손쉬운 이용이 가능해졌다.

산책로에 전동휠체어 충전기, 족지도식 안내판, 등이자 등 편의시설이 설치하고 계곡주변 보행약자 전용 광



무장애나눔길 조성 모습

장데크, 체험활동이 가능한 황토포장을 조성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금산군 제공

서산달래, 전국대형마트에서 만난다!

9일부터 안성물류 통해 납품

내년 4월까지 50톤(7억) 출하

[서산]충남 서산시는 높은 영양분 함유와 특유의 풍미를 자랑하는 서산달래가 전국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납품된다.

시에 따르면 서산 운산농협(조합장 이남호)은 지난 9일부터 서산달래를 90g씩 소포장해 안성물류센터에 출하

를 개시하며, 출하된 서산달래는 롯데마트와 이랜드 김스클럽, 롯데슈퍼 등 전국 150개 매장에서 판매된다.

서산 달래는 전국 최초로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했으며 관내 400여 농가가 전국 달래 생산량의 60%인 1천여 톤 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서산 달래는 진한 녹색의 잎과 줄기는 마르지 않고, 뿌리가 둥글며, 윤기가 있고 향이 좋다.

/서산시 제공

“아이에게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의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위탁가정을 찾습니다.

가정해체로 인한 사회문제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 그 중에서도 아이들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안정적인 집에서 지내고,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새로운 가정이 되어주세요.

위탁아동에게는

이 필요합니다.



꿈을 키워줄 어른
마음을 나눌 어른
사랑을 표현하는 어른



든든한 가정
행복을 가르쳐줄 가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정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부터 충청남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심리학

내포칼럼



전 우 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나를 나로 결정하는 것
사람의 본질은 어디에 있나

자신을 판단할 때는 내면을
타인은 외면으로 규정해

외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외모와 생각은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내면과 외면 어디에도 없어

사람의 본질을 규정하는 건
과거에 했던 선택과 행동뿐

나를 나로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마음일까, 나의 외모일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마음일까, 그의 외모일까? 본질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까? 본질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외면에 있는 것일까?

정체성 지각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토대로 자신과 타인의 정체성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진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지각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외모와 생각으로 구분된다.

외모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이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별, 인종 등과 같은 정보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생각이나 마음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세밀한 부분까지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는 자신의 생각, 즉 내면에 상당한 가중치를 두지만,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는 그 사람의 외모, 즉 외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를 내 생각과 기억을 토대로 규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내 얼굴과 외향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변하는 것들
사람들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

각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모습과 변하지 않는 마음이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외모와 마음은 모두 변하는 것들이다.

나의 얼굴도 그의 얼굴도, 나의 생각도 그의 생각도 모두 변한다. 나의 얼굴은 어제 거울에서 본 그 얼굴과 같아 보이고, 나의 생각도 어제와 같아 보인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의 모습과 생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외모도 변하고 생각도 변한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변화와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매일 아침 급격히 다른 외모로 바뀌지 않을 뿐, 우리의 외모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바뀐다. 아기 때 모습과 스무 살 청춘의 모습이 다르고, 중년과 노인이 된 후의 모습이 다르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르고, 청년 시절 추구하던 가치가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도 한다. 내 얼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한다. 그렇다면 변할 수 없는 나의 본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선택과 행동의 역사다. 과거 내가 했던 선택과 행동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변할 수 없다. 어떤 길을 선택했고, 누구를 사랑했고, 무엇을 위해 헌신했는지의 기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는 어제까지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가에 의해 규정된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내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외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과 행동이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생생현장리포트



최 영 민
천안신문 기자

지난달 29일, 온 국민의 넋을 잃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다.

2일 현재 무려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비통에 빠졌다. 텔레비전 뉴스는 연일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보로 채워졌고, 유족들을 비롯한 희생자 가족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아직 상황수습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인 지금, 벌써부터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나는 책임이 없다’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말들이 정치권, 공직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들이 공개적인 유감 표명을 했으나 이마저도 논란거리를 계속 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결론을 먼저 언급하자면 이는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우리 자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

식 부재가 만든 ‘인재’다.
먼저 정부는 이 사건 초반부터 이튼바 ‘밀친사람’이 누구인지 CCTV 등을 활용해 찾아 형사처벌을 하려는 모습부터 보였다. 그 사람을 수사를 통해 찾아낼 순 있다 하더라도, 정부 측이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서 수 백 명의 사람을 한 사람이 밀쳤다고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처사일지도 의문이다.

‘압사’는 흔히 후진국형 사고라고 칭한다.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보다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아니한 시민의식이 우리들 내면에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만든 ‘인재’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글귀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안타깝지만 충남도내에서도 천안을 비롯한 몇몇 곳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 우리는 이제 늘 주변에 함께했던 156명의 형, 누나, 친구, 동생들이 왜 우리 곁을 떠났는지, 그들의 가족과 이별하게 할 권리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지,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가족에게 보냈어야 했지만 왜 하지 않았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이웃과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의식이 갖춰질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다.

아무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소중에 문학관의 책들(13)



소 중 애 동화작가

1970년 11월25일 발령이 나 해미초등학교로 부임했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교실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왔다. 거기에 76명의 아이들이 짝 차 있었다. 교감 선생님이 날 소개 했다. “여러분을 가르쳐 줄 소중에 선생님입니다.”

아들이 많기는 했지만 순진해 보였다. 그런데 웬걸 교감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막 떠들어댔다. 발을 굴러대는 아이들도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눈앞을 가렸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공부해야죠.” 내 목소리는 여리고 가냘팠다.

아이들은 계속 발을 구르며 떠들었다. 알지 못할 바리스에 감염되어 집단 발작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었다. 입술이 발발발 뽀뽀했다. 금방이라도 으왕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교탁을 꼭 잡고 대책없이 서 있는데 한 남자 아이가 별똥 일어나 소리쳤다.

“아이 새끼들이 조용히 해 !”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이 조용해졌다. 발을 구르는 아이들도 없었다. 아이가 교실 뒤로

걸어갔다. “어디 가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여리고 가냘팠는데 떨리기까지 했다. “똥 누러 가요.” 아이는 그 시간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개가 소리 지른 효과는 다음 시간 까지도 지속 되었다.

그날은 어떻게 하루가 갔는지 모른다. 아이들을 보내고 빈 교실에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똥내가 났다. 쿵쿵거리며 찾아보니 시멘트 바닥 물청소를 하고 나면 물 빼는 물구멍 옆에 누군가 실사똥을 흘리고 간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이 좋지 않은 아이가 있어 실사를 자주 하니깐 전 담임이 청소하기 쉽게 물구멍 옆에 앉힌 것이었다.

양동이에 물을 퍼 와서 똥을 향해 끼얹었다.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멀리서서 끼얹었다. 물은 똥을 치고 벽을 치고 나에게 날아왔다.

“으왕” 하루 종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학교에는 말도 않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목욕탕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서산으로 가야하는데 냄새나는 몸으로 갈 수도 없었다. 연탄불에 물을 툇혀 부엌에서 목욕을 하면서 울었다. “나 선생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그런데 어디 인생이라는 것이 제대로 움직이던가. 학교를 그만 두면 집에 가서 살림하다가 시집 가는 길 밖에 없었다. 나는 계속 근무할 수 밖에 없었다.

고향의 폐허를 상징하는 애달픈 묘비, 판교극장

윤성희의 만감(萬感)

가던 길을 돌려서 서천군 판교 읍내로 방향을 튼 때는 하늘마저 유난히 청명한 10월 중순의 오후였다. 옛 판교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판교마을을 둘러볼 참이었다. 작년에 현암리 일대의 건물과 공간을 묶어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는 곳이다.

‘구’역전 소나무’라는 안내 팻말이 있는 나이 든 소나무 앞에서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해설사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그들의 시선에 여행자의 호기심이 잔뜩 묻어나고 있었다. 도시에서 왔을 그들 여행자에게 판교는 어떻게 비치고 있었을까.

판교는 그 앞에 많은 수식어를 거느리는 곳이다. 무엇보다 판교 스스로 ‘시간이 멈춘’ 곳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 누군가는 시간이 잠들어 있다고도 하고, 시간이 고여 있다고도 말한다. 시간이 박제되었다고도 하고, 시간이 저 먼저 가버렸다고도 쓴다. 그래서 레트로



판교극장

감성을 누리고 싶어 하는 호사가들에게 판교는 오래된 기억의 저장소가 된다.

그러나 오늘 내가 바라보는 판교는 죽은 이들의 미래를 품고 있는 유적지이다. 그 시절의 ‘장미사진관’이며 ‘삼화주조장’이며 하는 것들이 품고 있었을 미래를 상상해 보라. 이 지역 최고의 문화시설로서의 ‘판교극장’이 가꾸어 피우려던 삶의

질을 떠올려 보라. 그렇게 꿈꾸던 판교의 미래는 쇠락을 견디다 못해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다.

판교극장은, 장미사진관은 판교의 폐허가 아니라 우리 농촌의 폐허다. 나의 고향의 폐허를 기념하는 애달픈 묘비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일어나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새긴 유럽의 어느 묘비처럼, 판교도 잠시 잠들었다 다시 깨어날 수만 있다면 그깟 인사쯤이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국가 등록문화재 판교마을. 현재와 미래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과거를 지우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그 유적을 보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70년대 이후 도시화의 물살에 휩쓸려 모두가 썰물처럼 이곳을 빠져나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밀물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고령화 지수를 나타내는 판교면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무려 53.5%다.

/윤성희(문학평론가)

“왜 청소년이나가요?... 작은 것에도 큰 변화 만들잖아요”

청소년 여행기업 (주)조그마한 여행사 조원희 대표

기부학·여행의 점점 찾아낸 여행가·기부조성가

“청소년 무료여행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이 목표”

[예산]자신을 여행가로 불리달라는 사람답게, 그와의 인터뷰는 이윽한 아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제주도 여행을 지원하는 학교현장에서 진행됐다. 예산에서 ‘(주)조그마한 여행사’를 운영하는 조원희(45) 대표를 찾는 이들은 주로 청소년들이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패키지 여행상품, 저가형 해외여행을 판매하는 일반 여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굳이 규정하자면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여행사다. 그는 “어떻게 해야 삶이 바뀔까 고민하다가 여행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됐다. 아이들이 어디가서 소통만 잘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기회가 아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사실 청소년이 가장 여행이 필요한 이들이다. 가장 많은 것을 빠르게 수용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에도 큰 것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여행은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다.

지난 2015년 예산을 관작리에서 문을 연 여행사는 ▲삼교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도네시아 스메루 화산탐험 프로젝트 ▲군내 중학생들이 실행한 베트남 세일즈 여행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뿌리찾기 원정대 등 특별한 여행을 상상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여행프로그램 연구개발·기획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전 직원이 4명인 회사의 중심에 스스로를 ‘여행가’, ‘기부조성가’로 소개하는 조 대표가 있다.



(주)조그마한 여행사 조원희 대표

그는 회사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작은 여행사를 추구한다. “처음부터 작은 여행사를 목표로 했다. 더 작아질수록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봤다. 작은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작은 것을 추구했더니 저도 모르게 제 꿈도 작아졌지만, 대신 그만큼 어려움도 적어졌다”고 말한다.

조 대표가 1997년 경기도 군포시 흥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은 컴퓨터다. 아이들과 함께하



여행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과 조 대표.

는 것을 좋아해 군복무 후 2000년 한서대로 진학해 전공을 청소년학으로 전환했다. 이후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학과정을 마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기부학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 대학원은 2년에 마쳤지만 인디애나대 과정은 4년이 걸렸다. “기부, 돈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의 ‘기부학’ 이야기는 낯선 분야다.

그는 기부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선한 마음을 만들고, 그 선한 마음을 다

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각자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전달하려면 ‘관계’를 형성해야하는데, 이 ‘관계’를 조 대표는 “여행을 통해 실현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예산군에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여행가고 싶을 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며 ‘청소년 무료여행 프로그램’ 실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이들 4명이 가려다 3명이 간 여행프로그램이 많다. 영리회사다 보니 여행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비용부담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안타까움에서 나온 발상이다.

그는 ‘다음 여정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여행은 평등해야하고, 아이들에게 기회가 필요하다”는 표현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와 단호함을 보니 관한 걱정이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무한정보신문 제공

색소폰 연주자 부부, 당진에서 미래를 꿈꾸다

우리만의 앙상블 보여주고 싶어

[당진]클래식 색소폰 공연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젊은 두 연주자가 부부가 되어 당진에 찾아왔다. 바로 클래식 색소폰 연주자 이한행(35) 씨와 원희선(34)〈사진〉 씨다.

당진중, 호서고 출신인 이한행 연주자는 중학교 시절 관악부 동아리로 활동하면서 색소폰을 전공하기 시작했다. 원희선 연주자 또한 17살 취미활동으로 시작한 동아리에서 색소폰을 접하고 전공하게 됐다. 이 두 연주자는 한양대 음악대학 관현악과 색소폰전공선·후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지난 2020년 12월 결혼 후 당진으로 내려와 연주자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희선 연주자는 “결혼 전 남편을 따라 종종 당진에 놀러왔는데, 그때 클래식 색소폰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당진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후 결혼하고 남편과 미래에 대해 고민한 끝에 당진에서 새로운 문화 공연과 후학을 양성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내려왔다”고 말했다.

두 연주자는 부부의 장점을 살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호흡을 맞춰갔다. 이후 당진문화재단 공공예술프로젝트 자유롭게 색소폰 듀오 게스트로



출연했으며, 해나루청소년음악제, 당진예술제, 온누리합창단에 초청받아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올해 신진예술인으로 선정돼 지난 1일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원희선 색소폰 독주회’를 열었다.

클래식 색소폰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던 두 연주자는 이번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테너와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 구성, 곡의 이해를 높이는 해설 등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딱딱하고 어려운 클래식 of 이미지를 바꾸고자 노력했다.

사실 색소폰이란 악기를 생각하면

보통 중년 남성들의 동호회가 떠오르기 마련이고, 클래식보다는 일반적인 대중가요나 팝, 재즈에서 주로 사용되기에 ‘젊은 클래식 색소폰 연주자’라는 수식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두 연주자는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악기인 클래식 색소폰은 목관악기의 부드러움과 금관악기의 강함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며, 앞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당진 시민들에게 다양한 클래식 색소폰 공연을 선보이고 싶다는 바람과 지역의 색소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꿈을 전했다.

이한행 연주자는 “기회가 된다면 부부가 함께 진행하는 듀오 리사이틀 공연을 통해 우리만의 앙상블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는 당진 색소폰 동호회분들을 모시고 오케스트라도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원희선 연주자는 “지역에서 활동무대를 넓혀가 좋은 연주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다”며 “당진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색소폰을 전공하는 학생들, 색소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당진신문 제공

공주시, 3년 연속 최고 여행지 선정

공산성 성곽 트레킹 인기
밤 활용한 먹거리도 풍부

[공주]세계유산도시 충남 공주시가 올해의 최고 여행지를 뽑는 ‘2022 SRT어워드’에 2020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풍요로운 천년도읍 공주’를 비롯해 전국 10개 도시가 올해의 최고의 여행지로 꼽혔다.

백제의 고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3곳이나 보유하고 있는 공주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오히려 힐

링 여행지로 각광 받았다. 공주를 대표하는 공산성은 성곽을 포함해 백제와 조선시대의 유적이 잘 보존돼 있어 역사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고 공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성곽 트레킹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공주 밤을 활용한 파이, 에그타르트, 막걸리, 라떼를 비롯해 칼국수, 찜뽕, 알밤한우 등 식도락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최고의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주시 제공

철새 먹이주기 프로그램 운영

가족 단위 관광객 대상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서산]충남 서산시는 천수만 서산버드랜드 일대에서 12일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철새 먹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11월 30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매주 수·토요일 2회(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씩 운영된다.

1회 운영 시 5가족, 20명 이내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들은 철새의 이동과 먹이활동, 먹이주기 필요성에 대한 생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천수만 공공임대 휴경기지에서 가족 단위로 낮과 벼훅이를 이용한 전통 방식의 벼 베기, 탈곡 체험을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서산버드랜드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산시 제공



사서들의 서재



〈기후미식/의의철/위즈덤하우스 /2022년〉

지구를 먹다

요즘 호우나 태풍, 산불과 같은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류의 활동 때문에 온실 가스가 늘어나고 기온이 오른 탓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연구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식량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에 주목하고, 우리의 식생활을 바꿈으로써 대기 중의 탄소를 줄이

고 우리의 건강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기후 위기가 어떻게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설명하고, 2부에서는 식품 생산이 어떻게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지 설명한다. 고기를 먹기 위해 가축을 기르는 것은 같은 양의 곡물을 재배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고, 메탄 등의 온실 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 이렇게 배

출된 온실 가스가 기후 변화를 일으키면 기존에 재배할 수 있던 작물을 기를 수 없게 되면서 식량 안보가 흔들린다.

3부에서는 동물 위주의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소개한다. 내 아이의 키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먹이는 고기와 우유가 오히려 아이의 건강을 망친다는 말은 흘러넘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동물성 단백질이 오히려 아이의 성장까지도 방해할 수 있다는 말은 섣불리 무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4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

환경적인 식생활을 소개한다. 나물이나 찜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식문화는 다듬어 우리 입맛에 맞는 친환경적인 식단을 개발해 보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일어나는 재난을 겪을 때마다, 인류가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곤 한다.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책들을 통해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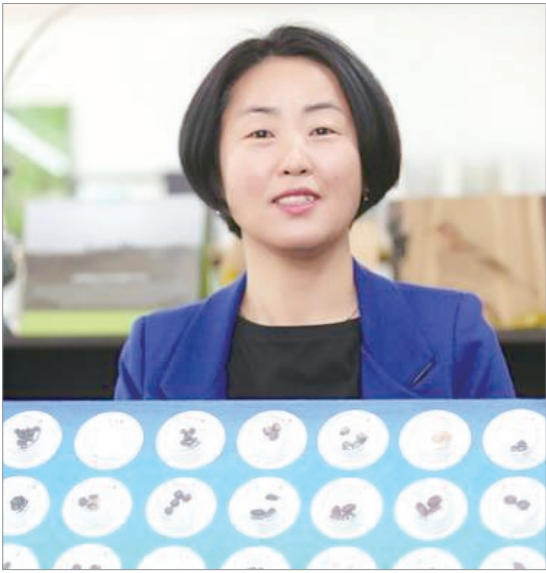
/충청남도 운영지원과 조한서

씨앗, 생명의 근원이자 위대한 유산

[인터뷰] 토종씨앗지킴이 유일순 대표

[서산]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다. 한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가공식품에 젖어들었다. 이 또한 한 순간이었다. 대중매체에서는 연일 먹방으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등장하여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산에서 공예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씨앗지킴이 여전사 유일순 씨를 만났다. 사라지는 토종 씨앗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녀를 지킴이 활동가로 만들었다고 했다.

씨앗을 지킨다는 것이 참 생소하다. 혹시 어릴적 고향이 시골이었는지?
“내 고향은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농촌 마을이다. 유년시절은 내게 추억이 많은데 특히 할머니와의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많이 남아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을 부르시더니 씨앗들이 보관되어 있던 바구니며 상자, 그것도 모자라 곳곳 열쇠까지 내주셨다. 그리곤 낮잠을 주무시러 들어가시는게 마지막이 됐다. 귀하디 귀한 곳간 열쇠와 씨앗은 집안 큰 어른신의 보물이었는데 당신이 돌아가실 걸 알고 미리 주고 떠나신 걸까? 지금이야 돈만 주면 종묘시장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씨앗, 이제는 할머니가 애지중지했던 씨앗들이 영혼 빠진 물건이 된듯하여 쓸쓸하다”



현재 씨앗을 이용하여 작품활동을 하면서 토종 씨앗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 계기가 있는지.
“30대에 결혼을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토종씨앗 지킴이가 됐다. 식사시간이 힘들었다.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채소를 먹이기 위해 방방거렸고,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면서 채소소믈리에가 됐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접했는데, 특이한 외국농산물은 직접 재배하며 자료를 찾고 기록을 해나갔다. 정말 소중한 우리의 씨앗들이 지역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과 인연이 됐다.”



▲토종씨앗키우기 활동
▲토종화앗지킴이 유일순 대표
씨앗토리 캐릭터▶



씨앗 지킴이를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을 것 같다. 이 일을 지속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우려하는 사람도 많았다. ‘평생 땅과 함께 살아온 농부들도 농사를 짓는 판국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다시오나?’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서산 토종 씨앗 지킴이로 사라져가는 텃밭 생물 다양성 보존과 가치 전달 활동이 시작됐다. 벌써 7년째다. 토종 씨앗은 오래전부터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제철 농산물의 종자를 뜻한다. 이것은 한번 멸종되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도 다시 살릴 수 없다. 토종이 사라지면 그 씨앗과 식물들

먹고 살던 우리 민족의 음식 문화와 생물 다양성 또한 사라진다. 우리의 씨앗이 후대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토종 씨앗이 사라지기 전에 지켜내고 보존하여 확산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지금 세계는 종자 전쟁 시대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씨앗 토리’라는 명칭이 상당히 귀엽다. 어떤 뜻이 담겨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씨앗 토리’는 작지만 지구를 살리는 씨앗,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로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씨앗 토리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씨앗 토리는 씨앗처럼 작지만 아무지고 옹골찬 이를 뜻하며, 채소와 과일을 좋아하는 토끼(토끼띠 팀원들)와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이미지를 합성한 캐릭터다. 토종 씨앗을 활용한 지역 농민 소득과 생애주기 맞춤형 생태전환 체험 서비스 제공,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증식, 종자 주권 보호, 자연농법 실현 등을 위한 사업 홍보 활동에 친근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토종 씨앗이 경제활동에 도움은 되는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슬프다. 쌀값도 유지되기 힘든 상황에 농민들이 지쳐간다. 쌀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서산시대 제공

제12대 충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돌입

이달 8~21일 91개 기관 행감

29~30일 도정·교육행정 질문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김태흥 충남도정과 김지철 충남교육행정 전반을 살펴보는 제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도의회는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제341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14일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등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이 기간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전년 대비 250건이 증가한 2,132건(도 1,960건, 교육청 172건)으로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진행되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12월 1일부터는 충남도·도 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6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길연 의장(부여)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이번 정례회에서 도의



충남도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회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심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함께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버스정류장 지붕에 꿀벌 서식지 조성하자”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은 7일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사라지는 꿀벌의 개체 수 증가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붕에 정원을 만들어 꿀벌 서식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이 꿀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를 제시하며, 꿀벌 서식지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버스정류장 지붕 위 정원 만들기는 꿀벌 개체 수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꿀벌생태계 살리기에 앞장서자”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유아 지원 차별 개선해야”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7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학비 지원 여부가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외국인주민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만 3~5세)는 국·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 54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전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충남은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국 1위로 고충이 크다”고 강조했다.

“충남 ICT 관련 조직 재구성해야”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은 7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은 ICT 관련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각 영역 간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없고 기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 ▲ICT 업무 전담 기획부서 구성 ▲ICT 업무 통합 운영 ▲ICT 업무 국 단위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ICT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역사 교과서, 상식적 수준으로 집필해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7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역사교과서를 상식적 수준에 맞춰 새롭게 집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북한의 남침은 6·25 전쟁을 유발한 역사적 사실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삭제함에 따라 전쟁의 책임 소재를 가렸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충남교육청에 “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집행부 예산정책 협의 실효성 높여야”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은 7일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협의회의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지속적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충남도-도의회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충남도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조정협의회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속적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촉구했다.

‘충남 청년센터’ 신설 촉구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은 7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청년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남 청년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 의원은 “도내 15개 시·군 중 청년을 위한 기관은 천안 3개, 공주 1개이고, 공주시는 청년공간 2곳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논산, 서천, 홍성, 예산은 아직도 청년센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주요활동

KBS 수신료 거부운동·수요자 중심 홈페이지 개편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KBS 공주방송국이 2004년 폐지된

이후 20년 가까이 충남도에 KBS 공영 방송국이 없다”면서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역할이 막중한 만큼 수신료 거부운동을 해서라도 충남도에 KBS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은 “홍보 주

축해 실질적인 활동내역이 전무하다”며 “홍보대사 선정 시 주제에 맞지 않는 유명인 위촉은 지양하고 위촉 후에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보도자료 작성 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은 “홍보 내용에 따라 중앙지와 지방지를 선택함에 있어 충남도가 집중할 부분에 주력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의원(천안3)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영상제작물에 등장해서는 안된다”며 “유튜브 제작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소통 등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운 의원(계룡)은 지역 언론 지원사업과 관련 “남부지역이 소외되고 있는데 지역적인 배려와 안배를 해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지운 의원은 “충남도 홈페이지는 일방적으로 알려주려고 하고 지사님 관련 홍보 보도자료 사진만 가득하다”며 “수요자가 알고 싶고 듣고 싶은 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율성 제고 통한 예산 낭비 방지 등 도정 발전방안 제시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8일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자치국 소관 19개 위원회 중 3년간 단 한차례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 정비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해달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낮은 임금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9급 신규 공무원의 조기 퇴직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제대로 된 조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아산5)은 “국립경찰병원 유치 뿐만 아니라 생활형 SOC 설치에 있어 도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모습이 아닌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은 “육사이전은

단순히 기관 유치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취지”라며 “중앙부처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자치경찰 사무에 있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질서 확보 및 교통 문제 해소 등이 있는 만큼 다중운집 행사 지원 시 기동대 사전 협조 등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의원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경찰법에서 규정한 자치경찰 내 수사범위가 모호하여 업무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관 숫자, 지역의 인구수를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 복지 체감도 제고 위한 사업추진에 온 힘” 당부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저출산보전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저출산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각 소관 부서의 내실 있는 행정으로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은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 “시군에 수요 파악조차 하지 않고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점, 전국 최초 ‘공주 어르신 놀이터’를 신설하고 제

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충남도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일부 사회적 배려 계층에 제한돼 있다”며 “아이를 원하는 도민은 금전적 고민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은 “다문화 가정이 도에 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충남도가 외국인 아동에게 학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세계 보편적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어긋난다”며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은 “영유아 발달

장애 적기 치료와 교육 연계를 통해 장애아동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평가 권고 판정 시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간 구급차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은 충남도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에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가로림만 국가정원 사업비 증액·해양환경 보호 촉구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9일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오염수 방류로 굴과 바지락이 폐사가 빈번한 양식어민들의 피해 보상과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비가 당초 2717억원에서 1577억원으로 축소됐다”며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오안영 의원(아산1)은 “현재 도내 1만4389명의 등록어업인 중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은 392명(2.7%)에 불과하다”며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의원(천안5)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을 늘려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은 “국가차원의

항만개발에 찬성을 표하지만 대산·당진항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항만 건설 추진 시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의원(예산2)은 “현장방문시 청취한 유인도 주민의 애로사항은 유가 인상으로 운행이 줄어든 여객선 문제였다”며 “여객선 운행의 주체를 공공기관이 담당해서라도 섬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은 “충남도가 액정폐기물로 김황백화 치료제를 특허 출원한 것과 더불어 해양쓰레기 자동수거 로봇개발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호에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은 “어촌을 살리려면 청년을 포함한 귀어민 유입이 중요하다”며 인센티브 강화 등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주문했다.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 및 철저한 안전대책” 요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가 충남도의 재난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하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난 대응 행정을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8일 제34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징수부과, 보상절차 등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적법하게 해줘야 하며, 관련 예산확보도 좀 더 철저히 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 74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할 것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은 당진 삼교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해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재차 당부하고, 재

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적기에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촉구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은 “지역 행사장 및 축제장에 대한 안전대책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철저하고 세밀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용 의원(당진3)은 “특별사법경찰관 단속업무에 있어서 민생 6대 분야 단속실적이 2만6000건인데 반해 담당 주무팀 처리 인원은 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업무 하중이 불 보듯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풍수해를 대비한 하천 정비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무상급식 협력·사업 불용예산 최소화 강조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8일 충청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의 무상급식비 부담률을 교육청 70.1%, 지자체 29.9%로 조정해

합의했다”며 “앞으로 양질의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은 “교육 현안 사업 등에 빠르게 대처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인사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국제교육

원에서 운영하는 ‘다우리 꿈길성장캠프’와 관련 “대학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의원은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정보원에서는 정책 11개, 자율 4개 총 15개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 보고서가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환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때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일부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적했다.

신순옥 의원은 “충무교육원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다”며 “불용 예산을 최소화해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참여도와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서천1)은 “직속기관 원장님들이 6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직속기관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박정식 의원(아산3)은 충무교육원 내에 여해학교의 이전 상황을 질의하고, “여해학교 이전에 따른 여유 공간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여 내실있는 역사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듣는다



⑤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이완식 부위원장
도민 안전과 사고 예방에 ‘집중’
강한 추진력으로 도민 행복 앞장

“전문가적 관점으로 촘촘한 현장 점검할 것”

제12대 충남도의회 출범이 넉 달여가 지났는데 소감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어느 의원보다 익숙한 분야다. 대학에서 토목·도시공학, 건설 분야를 공부하고 직장에서도 오랫동안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촘촘한 현장 점검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과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항공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충남도는 소방헬기 한 대

로 22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비와 검사로 인해 위급 상황 시 출동 공백이 생기는 등 불안 요소가 크다. 이에 의회는 지속적인 소방헬기 추가 도입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고, 헬기 추가 도입을 확대받은 실정이다. 2024년 충남소방복합타운(청양군 소재)이 완공되면 그에 맞춰 추가 도입되는 중형 헬기까지 수용 가능한 최신 헬기 격납고를 갖추게 된다. 앞으로 도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 시 20분 내로 도달할 수 있게 됐다.”

제12대 의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이용해 체계적이고 계획

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 당진의 경우 지리적 조건이 수도권과 맞닿는 곳으로 교통의 중심이며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좋은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명품 녹색 도시를 조성해 가고 싶다. 특히 당진 기지시리에서 한진리리를 잇는 지방도 619호선의 확·포장 공사 필수구간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시급하다. 또 619호선이 끝나는 한진에서 삼교호를 잇는 해안도로를 확장해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지구를 조성하면 당진시 발전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현장 방문을 하다 보면, 용역 설계에서 낭비되는 예산도 적지 않다. 신중한 행정 이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싶다.”

의정토론회 및 연구모임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김선태 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의 신청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김선태 의원이 좌장을, 이용길 ‘생태교통으로 가는 길’ 대표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과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에너지전환과 시민햇빛발전소, 기후위기와 교통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또 서상욱 에너지협동조합 2050함께 이사장, 김우수 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우리 지역의 과제를 제시하고, 도심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례없는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각국이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충남도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천 산책로 편익시설 마련 방안 논의

안종혁 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의 요청으로 천안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다목적회의실에서 ‘하천 산책로 화장실 설치 등 편익 시설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주영 그녀들의봉사팀을 대표가 ‘천안천·원성천 일대 친수시설 사용 증가로 인한 편익시설 설치 재고’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김도훈 충남도의원(천안6)과 신한철 충남도 의원(천안2), 김강진 천안시의원, 강성기 천안시의원, 이종현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장, 지유석 천안신문 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영 대표는 ▲하천의



특성과 시민의 만족도를 고려한 공중화장실 설치의 시급성 ▲도시 하천의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 증가 ▲친수시설 설치와 개발 관리의 필요성 ▲천안시 개방화장실 설치 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안종혁 의원은 “어르신, 여성, 장애인, 아이 등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프로야구단 설립시 경제효과 분석

이종화 의원 “구체적 효과 분석 필요”

충남도의회 ‘충남 프로야구단 운영 경제 유발 효과에 관한 연구모임’ (대표 이종화 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 연구모임은 충남도 내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연구·분석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2차 회의에는 이종화 의원(홍성2)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프로야구단 유치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런 어려운 일일수록 도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위한 회원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또한 “야구장 건설을 통해 아마추어 야구단, 초·중·고 선수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야구단 설립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자리”라며 “추후 프로야구단 설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유발 효과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풍력발전과 어업인 상생 방안 구상

정광섭 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3일 정광섭 의원(태안2)의 요청으로 ‘충청남도 해상풍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정 의원이 좌장을,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안용주 선문대학교 교수, 장민규 충청남도 수산자원과장,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최장열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어촌계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광섭 의원은 “해상풍력이 어업인의 생계에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해 보인다”며 “서해안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조성 사



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상풍력과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위해 팔 걷는다

지민규 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의 요청으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토론회는 지민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양승록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유재연 가천대 교수, 구선희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복경 충남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임은영 충남도청 사회복지과 지역복지 팀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명수 국회의원,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김응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장 등 내빈이 참석, 축사와 함께 토론으로 이어졌다.

지 의원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1인가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사업 강화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소리를 높여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 신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11일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국내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 신설』을 주제로 지방의회 혁신분야에 참가해 대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진>

충남도의회는 양질의 입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회제도개혁 TF 활동을 진행했으며,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팀을 신설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우수사례는 지난 4일 입법



평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광섭 의원(태안2)이 발표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모델이 다른 시도의회에도 모범이 되고,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자치입법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충남이전!

육사의 두 번째 심장이 뛰었다

**육사 충남이전,
이제는 과감히 결단할 때입니다**

국방시너지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
세계 1등 명문사관학교로 업그레이드 되어야합니다

**육사 충남이전,
첨단국방 백년대계의 시작입니다**

‘육사의 충남시대’가 곧 시작될거라는 강한 믿음으로
220만 충남도민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육사와 충남이 대한민국 미래국방의 중심으로
우뚝서는 그날까지

**육군사관학교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